

#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위험가중치 대폭 완화

금융위, 여수서 첫 지역간담회...민간금융 참여 확대 유도  
전남도, 펀드 조성·운용 방향 공유...10조 유치 목표 제시

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하며 광주·전남 첨단산업 현장에서 민간 금융의 참여 확대를 공식화했다.

위험가중치(RW) 대폭 완화와 임직원 면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고위험·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전략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의 첫 일정으로, 중앙 정책금융과 지역산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전남에서 첫 지역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원 금융위원장과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민영 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해수 산업은행 부행장 등 금융당국과 정

책금융기관, 전남도 관계자, 지역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아오트랜드 광주를 찾아 미래차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이어 전남 광양의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 동향과 투자 계획을 청취했다.

미래차·이차전지 등 광주·전남의 핵심 전략산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 수준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규제 부담을 완화해 민간 금융회사의 투자 여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과 관련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투자 리스크에 대한 사후 책임 부담을 줄여 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었다.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자본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결집과 함께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준비 상황과 함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

능한 사업 구상을 공유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금리 완화 적용과 펀드 활용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직접 연계 사업 계획을 소개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국민성장펀드를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2026년 10조원 규모의 펀드 유치를 목표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16건의 핵심 사업을

발굴했으며, 도민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40여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좋은 아이디어는 집단지성 속에서 완성되고 그 성과는 지역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전남의 가능성을 구체적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방안도 이번 주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조기와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가동과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해 성장기업 지원과 시장 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월 임대료 10만원...광주 서림마을 행복주택 당일 완판

공가 세대 15세대 모집에 49명 접수

광주 서림마을 행복주택 공가 세대 모집이 파격적 입주 조건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으로 하루 만에 완판됐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전남 북구 서림마을 다사로읍 행복주택 공가 세대에 대해 선착순 모집을 진행한 결과, 15세대 모집에 49명 신청으로 종료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는 등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특히 시중 대비 저렴한 월 10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됐다. 공사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 방식을 도입해 복잡한 청약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호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향후 자적 점검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청년과 주거약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도 높은 공급 정책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북광주농협, 실맛이 자연마을 어르신 대상 봉사 북광주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광주시 북구 자연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칼잡이 봉사'와 '찾아가는 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한 어르신들의 가사 부담을 덜고,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쉽지 않은 고령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협 광주본부, 광주지검서 실맛이 직거래장터 개장

지역 15개 농축협 참여...10~30% 할인 판매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지방법검찰청 앞 광장에서 '실맛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중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명열 서

창농협 조합장,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현장 마케팅과 상품 구매에 동참하며 출하 농가에 힘을 보탰다.

특히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해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비롯한 각종 과일과 한우, 제수용품, 농협목우촌 가공식품, 정남진장흥농협 버섯 선물세트 등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선보

였다.

또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와 농협 광주본부 직거래장터 밴드 가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농가의 정성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카스 0.0와 함께 동계올림픽 응원 이벤트

댓글 참여 시 경품...종목별 카스 0.0 캐릭터 눈길

오비맥주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글로벌 파트너인 카스 0.0과 함께 소비자 참여형 SNS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가 한국 시간 기준 늦은 밤과 이른 오전 시간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알코음료 카스 0.0을 응원 음료로 제안하고자 기획됐다.

19일까지 오비맥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을 카스 0.0과 함께 응원하고 싶은 대한민국 경기 종목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오비맥주는 제25회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참여자 중 25명을 추첨, 카스 0.0 1박스(24캔)를 증정한다.

이벤트 콘텐츠에는 생생한 AI 기술이



활용됐다. 카스 0.0을 캐릭터화해 쇼트트랙, 컬링, 피겨스케이팅 등 인기 동계 종목에 역동적으로 줄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카스 0.0은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카스 프렌지, 카스 라이트와 함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한 응원 열기를 소비자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놀알코음료를 활용해 더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농협, '보급형 스마트팜' 참여 농가 모집

27일까지 접수...2000농가 사업비 75% 지원

농협중앙회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농협 생산자조직 대상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하우스와 과수원 등 기존 영농시설에 스마트팜 제어 장비를 설치하는 농협형 모델로, 농가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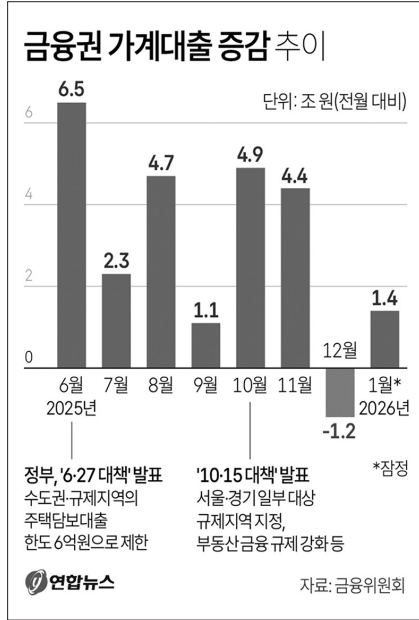
농가는 영농 환경과 재배 작물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경제어형은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며, 양액제어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액의 농도와 공급량을 관리한다. 관수제어형은 토양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해 물 공급을 자동화하고, 복합환경제어형은 이들 기능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관

리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사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설치 이후에는 농가별로 축적되는 영농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스마트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비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비한 신속한 사후관리(A/S) 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00농가로, 지난해 977농가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시설원에 및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협 생산자조직(공동선별·공동출하회) 소속 농가로, 생산자조직당 10농가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가계대출 한달만에 1.4조 반등  
2금융권 '풍선효과' 2조 이상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속에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1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또 줄었다.

하지만 은행 외 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 탓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소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원 적은 11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월 증가 폭은 작년 6월 6조 2000억원까지 커졌다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9~11월 1조9000억~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은행들의 연발 가계대출 총량 관리까지 더해져 결국 12월(-2조원) 11개월 만에 뒷걸음쳤고, 지난달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두 달 연속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4년 12월(-4000억원)~2025년 1월(-5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1조2000억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은행에서 1조원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선 2조4000억원 늘었다.

2금융권은 증가 폭도 한 달 사이 8000억원에서 3배로 커졌다.

연합뉴스